

## 佛敎와 韓國人의 思想

李 箕 永

이번 Symposium의 Thema는 外來思想과 韓國思想이며 이런 問題에서 佛敎와 韓國人의 思想을 다루라는 것이 主催者의 要求였읍니다. 이 要求를 들었을 때에는 外來思想에 佛敎를 넣고 佛敎와 韓國思想의 問題를 다루는 것이 나의 차례로 생각했는데 司會者의 말을 들으니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닌것 같아서 약간 pint가 벗어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外來思想과 韓國思想間에 있을 수 있는 諸 問題를 다루고 佛敎를 于先 外來思想으로 생각하여 歷史的으로 韓國人의 思想에서 佛敎가 어떤 位置를 차지했던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韓國思想이란 것이 있는가가 疑問입니다. 韓國思想이라 부를만한 體系的인 思想이 있어서 印度思想이나 中國思想과 對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 저는 朴鐘鴻先生님께서 말씀하신 既成品으로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그대로 引用하여 대답하려 합니다. 韓國思想이란 이것이다 라고 말할만한 獨特한 思想體系가 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韓國思想」이란 말을 「韓國人의 思想」으로 고쳐 말씀하려 하는데 그렇다고 明確한 무슨 한국인의 독특한 思想을 들추어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韓國사람의 思想」과 佛敎와의 關係를 주로 하여 말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檀君神話 같은 開國說話를 韓國思想으로 보고 있고, 또 「韓國思想」이란 雜誌의 一般的인 傾向은 東學을 韓國思想으로 부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 點은 수긍할 수 없읍니다. 佛敎도 韓國思想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見解는 좁은 見解 乃至는 지나친 見解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韓國思想을 뚜렷한 무엇이라 할 수 없는데 韓國人의 思想內에는 佛敎가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또 儒敎와 基督教이 그러하고 現在는 現代의 各種 西洋哲學思想이 韓國사람에게 들어와 混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서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儒敎나 佛敎는 韓國人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特히 佛敎는 가장 긴 期間에 걸쳐 韓國人의 思想의 깊은 內容을 이루어 왔읍니다. 儒敎 佛敎 基督教을 除外하고 어떠한 더 韓國的인 思想이 韓國人에게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別로 이것이라고 내놓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韓國人의 思想은 거의 外來思想입니다. 外來思想이 들어와 韓國思想이 되었는데 어느 程度로 한국것이 되었는가는 別問題입니다. 그러므로 儒·佛·基의 幾個의 宗教思想이 한국인의 精神的 遺産이 되었다면 果然 어떻

게 韓國化했는가를 다루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原則的인 것을 提示하자면 이와 같이 우리의 것이라고 할 뚜렷한 것이 없다면 土着化가 問題일것입니다. 外來思想의 土着化란 것은 重要한데, 自己것이 아니지마는 自己의 것이 되면 그 사람의 것으로 「되살아 나는 것」입니다. 外來思想의 土着化란 것은 移殖하여 그것이 살가 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 나는 것입니다. 外來思想의 移來는 이를 가꾸고 結果로 새로 낳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많은 條件이 있습니다. 基督教에 對하여 論議가 많은 데 大概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基督教가 韓國의 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르기 때문에 韓國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는 基督教의 土着化가 논의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基督教의 精神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後者是 問題로 삼을 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問題는 基督教을 超思想的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基督教가 土着化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佛敎나 또는 儒敎가 歷史上에서 어떻게 理解되고 어떻게 土着化하였는가를 考察하기 爲하여 土着化에 必要한 問題를 提示하려고 하는데 이는 原則의 提示에 不過할 것입니다.

外來思想이 그 땅의 것이 될려면 言語上의 장애를 뚫어야 합니다. 번역없이 그 땅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文章 樣式, 文體, 思考方式의 問題가 제기되는데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것은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佛敎가 印度에서 中國으로 와서 中國의 것이 된 것은 번역의 덕택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維持되었읍니다. 한국말로 된 것이 아니고 漢文이었고 다만 韓國式으로 읽는 사람에 依해 理解되었는데 果然 어느 程度 土着化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言語 하나 하나의 問題 卽 敬語에 관한 것, 語彙 누양스 등도 問題입니다. 佛經의 번역에 번역할 수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效果的으로 번역하느냐가 問題입니다. 대장경의 번역에 부처님이란 尊稱이 매우 문제 되었는데 이 表現은 印度語에는 없습니다. Sanskrit, Pāli는 우리 言語와 전혀 構造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 옮길 때 漢文을 媒介로 했기 때문에 二重的으로 되었고 中國人의 것을 踏襲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問題는 生活樣式의 問題입니다. 印度人, 中國人, 우리나라 사람 사이에는 많은 生活樣式上의 差異가 있습니다. Thailand에서 스님이 왔을때 매우 추워서 고생했는데 이와 같이 옷과 氣候의 問題가 있습니다. 이는 律藏에 記錄되어 있는 것을 지키기 때문으로 立場을 中國이나 우리나라에서 지킬려면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읍니다. 中國人은 이런 어려운 것을 변모시켰읍니다. 以外에 生活樣式의 여러問題가 다른 環境에서 변모하기도 하는데 中國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 韓國의 佛敎를 自己의 것으로 볼 수는 없읍니다. 또 佛經中에 코

끼리, 大河, 大山이 나오는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인도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번역에서도 問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獨特한 土着的인 過去가 있습니다. 이것이 즉 歷史인데 印度에는 브라아만, 요가의 諸面, 그리고 카스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그것과의 관련을 잘 모릅니다. 또 關聯시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에게서는 도쿠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事實上 全地域에 걸쳐 環境을 比較한다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方便에 불과하지 이것 自體가 重要的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外他思想과 自己思想을 생각할 때 人種의 差異에서 오는 障礙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人種差異에서 오는 問題를 無視할 수는 없습니다. 朴鐘鴻先生님의 말씀과 같이 西洋人의 文化의 特色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東洋人은 수용적인 것으로서 肉食하는 사람과 草食하는 사람 사이의 差異 또한 無視할 수는 없습니다.

印度의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똑 갖아 들어갔는가하는 것을 土着化를 생각할 때 늘 念頭에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土着化는 비단 儀式的問題, 찬송가 성경번역 문제만이 아니라 一切의 思考方式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外來思想으로 남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불교가 학대 받은 원인으로 어떤 사람은 「이는 그릇된 선교정책 卽 식민지시대의 잘못이다」고 指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이런 點이 없으나 政治, 社會, 經濟의 여러 條件을 無視한 思想의 土着化는 어렵고 또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빈곤하고, 全體가 未開한 社會에서는 人生의 觀點이 富한 사람의 그것과 같은 것일까가 의문이고, 이런 思想이 우리나라에 와서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點에서 佛敎는 韓國歷史에 있어서 韓國人의 思想으로 採擇된 뒤에 어떤 結果가 되었겠습니까?

漢文佛經은 不充分하게 이해 되었고 中國에서는 僞經이 많았는데 이것이 人氣를 끌었습니다. 中國의 特色을 닮은 매우 心理的 效果를 노린經이 들어왔습니다. 卽 中國의 解釋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中國의이고 中國의 文化가 그대로 들어와서 政治自體가 中國의 위성국가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分明히 思想的인 面에서도 過言 일지는 모르나 中國의 위성적 存在였습니다. 若干의 枝葉的인 變化는 있으나 本質的으로는 中國의 것이 踏襲되어 西洋人들은 우리의 文化를 中國文化圈에 넣고 있습니다.

佛敎는 世界性을 가지면서도 風土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韓國佛敎는 中國佛敎의 一面이요 中國佛敎의 變化와 一致하는데 中國이 中心이었을때도 좁은 意味에서의 世界性을 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의 見地에서 보면 世界性을 찾을 수 없고 中國의 것을 踏襲한 形편에서, 中國依存의

形態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경향이 많습니다. 韓國人은 充實性을 表示한 사람들입니다. 獨自的인 立場에서 世界性을 가지고 自己것으로 發設시킬 能力이 있습니다. 이것은 政治的 權力과 關聯을 맺으면 교조주의 적인 성격을 띠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韓國의 佛敎는 매우 國家主義的인 性格을 띠고 있습니다. 韓國의 佛敎는 王朝의 變遷과 더불어 運命이 消長되어 왔습니다. 新羅時의 隆盛은 王의 勇호 때문이고 高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佛敎는 政治적 興衰를 爲하여 나쁘게 말하면 利用物이 되었고 좋게 말하면 原動力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佛敎를 받아 들였을 때는 佛敎와 國家가 흥성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쇠퇴했다」고 하는데 歷史的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佛敎의 發展은 社會의 興盛과 一致됩니다. 그러나 社會의 혼돈기에 佛敎가 社會의 興성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事實 西洋의 歷史에 있어 歷史的 위기에 處한 수도원의 역할은 重要한 것으로 佛敎가 國王의 보호가 있으면 興성하고 없으면 쇠퇴했다면 비판을 받을 充分한 價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佛敎는 政治와 關係를 가지고 國家에 重要한 役割을 했는데 花랑도가 佛敎의 影響을 받았다면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國王의 高僧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國家의 統治階級과 關係를 가져야 하는 것일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을 引用하였던 분은 「이와 같이 속명적인 나라와 민족의 形面에서 불교는 순수한 종교의 形態라기 보다는 호국적 불교, 靈驗的 불교도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敎理의 發展인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원효와 몇몇분을 제외하고는 불교가 너무나 국가권력에 밀접한 關係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그 분은 「이와 같은 形面에서 民間에서 陰陽地理와 調和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는 조화라기 보다는 혼동입니다. 佛敎가 在來의 信仰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리켜 보면 新羅時부터 土着宗敎와 융합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中國의 初期, 特히 南北朝時에 빈궁하고 미개한 유목민족이 佛敎를 믿은 것은 불교의 影響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빈궁과 무지 속에서 실시되었고 이차돈의 순교도 그런 點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으나 죽은 다음에의 영원에 대한 기원은 한국적인 맛입니다. 한국적인 맛은 억지와 안타까움, 그러나 이를 뚫으려는 努力에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인이 佛敎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政治經濟面에서의 影響입니다. 經濟는 過去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학문을 요점적으로 간추린 것입니다. 西洋人처럼 학문의 態度를 가질 수 없습니다. 特히 過去와 같은 社會的 現實에서는 더욱 그러한 데 좋은 例로는 冊의 量이 적다는 것인데 이는 物質的인 제약입니다. 또 실천을 重要視하였기 때문에 교리를 차치하고 禪을 중요시하였으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禪이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는 行이 강조되곤 하였는데 그러나 탁월한 수행자가 배출하는 것과 一致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朴先生님은 「피안의 동경」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다 했으나 피안의 동경은 佛敎가 우리에게 준 것이다 생각합니다. 피안의 동경이 있다면 유교아닌 불교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저승이란 말이 나온 동기는 한국의 곤란한 형편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과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사실 한국인은 결코 어떤 지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기 前에, 사람다운 깊고 큰 희망을 가진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體系化된 理論에 의해서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에 外來思想이 들어와 공백을 채워준 것입니다. 特히 佛敎는 超思想的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사악한 것이 아닌 옳은 것으로 가는 超思想的인 宗教的 使命을 한 것입니다. 西洋的인 것보다 더 참된 意味의 行의 實踐은 佛敎가 가진 超思想的인 面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思想을 어느 地域面으로 구획하거나, 시대로 구획하여 이야기함은 모순인 것입니다. 實은 살아있는 것이고 기성품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에서 우리의 思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모든 條件이 이를 修行할 만큼 可能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必要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韓國思想에 끼친 天主教의 影響

柳 洪 烈

※ 本 發表는 錄音이 없되어 要約으로써 代한다.

韓國思想이라 함은 말할것도 없이 韓國風土 또는 社會에서 形成된 韓民族의 人生觀 宇宙觀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恒時 不變의 것이 아니고 爲 政者의 政策如何에 따라 時代的으로 盛衰하기도 하고 보다 새로운 外來思想의 攝取에 따라 變化發展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見地에서 韓國思想이 天主教(西學)의 傳來로 말미암아 變化하게 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天主教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모든 人類를 造物主인 天主의 아들이라고 보아 서로 兄弟와 같이 사랑하며 사람의 靈魂이 不滅함을 믿어 서로의 人權을 侵害하지 말것을 根本敎旨로 삼고 있다. 天主教는 이러한 敎旨를 武器로 삼아 온갖 僞善者 暴君 獨裁家 侵略者와의 神聖戰에서 最後의 勝利를 거두면서 地上에 「사랑과 平和」가 實現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이다.

韓民族이 天主教와 接觸하게 된것은 壬辰倭亂때 부터의 일이었다. 이 때 日本으로 잡혀간 數萬名의 우리 男女 同胞들은 奴隸로 되어 南洋 各地로 팔려가고 있었다. 때마침 日本에서 傳敎하고 있던 西洋人神父主教들은 長崎에서 會